지역경제 · 공공안전 동반 성장

남원시-소방청,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남원시는 정부의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에 따라 소방청과 손잡고 지역 소비 활성화, 인구 유입, 지역 현안 해결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번 자매결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전북소방본부와 연계해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소방청 주관으로 1,00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한 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와 제2회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협업을 이어왔다.

또한 소방청 복지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남원 특산품 판로 확보, 전국 소방공무원 가족 힐링 캠프 개최,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과의 협업 제품 제작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양 기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연 1회 이상 단체 관광교류 추진 △소방청 임직원 주요 행사의 남원시 우선 개최 △휴가철 남원 방문 장려 인센티브 제공 △기관 기념품·명절 선물에 지역특산품 우선 활용 △바자회 및 직거래장터 정례화 △남원 누리시민 가입 및 고향사랑기부제 유도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첫 단계로 세종시 제2정부청사에서 남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특히 남원시는 소방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6만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이 잠재적인 소비층으로 연결되는 실속을 가져온 만큼, 지역 관광지 방문 확대,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특산품 판로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할인 및 캐시백, 남원시 직영 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소방청과의 자매결연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경제와 공공안전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남원시와 소방청의 협력이 전국적인 상생 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국회 찾아 주요 사업 지원 건의

왼쪽부터 최경식 남원시장, 서영교 의원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0일 기재부 방문에 이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5일 국회로 달려갔다.

최 시장은 연초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과 남원의 미래를 밝혀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회를 방문한 15일에 최 시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소속 이수진 의원을 만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과 인구 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을 차례로 만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협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과도 주요 지역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이전까지는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였지만, 정부안이 확정된 만큼 국회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의 주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달리고 또 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최종보고회 개최

순창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각 실과 부서장, 읍·면장들이 참석해 축제 준비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축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만큼, 사실상 축제 준비의 마지막 조율 단계이자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력 점검의 장이 되었다.

올해 축제는 2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콩, 삶고 찧고 메주 만들자 △황금 메주를 찾아라 △순창보물 장추왕을 찾아라 △장류제품 할인이벤트 △장맛나라 온캐치! 티니핑 △발효청춘 광끼 경연대회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꽃축제를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했으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지난 15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상행선(완주 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을 정식 개장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 개장

임실군, 오수휴게소 하행선 1호점 이어 상행선에도 개장

임실군이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선에 이어 상행선에도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개장됨에 따라 고속도로 상하행선 모두에서 임실N치즈 등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15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상행선(완주 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을 정식 개장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에 개장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선(순천 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1호점에 이어 상행선에도 마련된 로컬푸드 매장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박주현 관리처장, 충북본부 김석규 관리처장, 풀무원푸드앤컬처 김경순 부사장, 이재문 농협임실군지부장을 비롯한 농축협조합장, 유제품 및 로컬푸드 납품 농가 및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5억3천만원을 투입해 76.9㎡ 규모로 건축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임실군이 건립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에서는 임실군의 대표 특산품인 임실N치즈 유제품을 비롯해 임실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은 물론 주스류, 장류, 호두양갱, 꿀, 다슬기 맑은국, 가시엉겅퀴즙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날 수 있다.

군은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단순한 판매장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휴게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 개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며 "방문객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최종 3개소 선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해위험정비 신규사업'에 최종 3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48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신규사업은 총사업비 489억원(국비 245억, 도비 98억, 시비 146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백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66억원 △생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5억원△산동 월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 등이 선정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선정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송동면, 대강면, 산동면의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원시는 △사석지구 △대곡지구 △등구·평선지구 등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노암4통 △주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다양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은 총 2,179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남원시 재해예방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독감 예방접종 22일부터 순차 시행

순창군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순으로 무료 접종이 제공된다.

예방접종은 오는 22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생후 6개월~8세 이하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9일부터는 일반 어린이(생후 6개월~2012년생까지)와 임신부, 10월 15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무료 접종은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과 함께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위탁의료기관 16개소, 10월 22일부터는 보건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도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은 10월 22일부터 관내 보건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생명나눔주간 맞아 '희망의 씨앗' 캠페인 실시

임실군이 제8회 생명나눔주간(2025.9.8.~9.14.)을 맞이하여 지난 11일과 12일 보건의료원 1층 대기실에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나눔주간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지정되어 있다.

이 기간에 생명 자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는 의미를 담은 생명나눔 통합 브랜드인 '희망의 씨앗'을 활용해 장기,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 알리고, 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전국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